

# 都市·村落地理學

姜 大 玄

원래 村落과 都市를 포함하는 聚落地理學이 人文地理學에서 分化하여 體系化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이고, 이어서 都市地理學의 發達에 따라서 自然히 聚落地理學은 村落만을 重要對象으로 삼게 되었다. 그래서 解放 30年間に 있어서 우리나라 學界에 있어서도 前半에서는 村落·都市를 포함하는, 聚落地理學 後半 즉 1960年代 이후 都市發達期를 맞이하여 都市研究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都市地理學이 分化發達하게 되어, 各大學의 地理學科에서도 都市地理學講座가 聚落地理學에서 分離新設하게 되었다.

## 1. 聚落地理學의 發達과 各國의 動向

聚落地理學의 發達에 先驅的役割을 한 것은 독일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A. Meitzen,<sup>1)</sup> R. Meilke,<sup>2)</sup> O. Schlüter,<sup>3)</sup> R. Gradman<sup>4)</sup> 등에 의하여 聚落의 形態, 景觀에 관한 研究가 主流를 이루었다. 특히 A. Meitzen의 Elbe江과 Weser江 流域의 聚落研究는 聚落의 類型, 立地要因, 景觀의 特色의 分類등에 있어서 聚落地理學의 體系化와 方法論에 있어서 先驅的役割을 하였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P. Vidal de la Blache<sup>5)</sup>를 中心으로 하는 소위 프랑스學派에 의하여 聚落에 對한 綜合的이고, 地誌的 研究가 主流를 이루었다. P. Vidal de la Blache는 聚落의 類型을 家屋의 疎密狀態에 의해서 集團의 居住와 分散의 居住 二大類型으로 區分하고, 그 因子로서 地形, 水利, 土壤등 自然的條件, 歷史的背景, 民族性, 經濟生活를 들고 이러한 因子의 地域의 特性을 究明하는 地誌的 研究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英國에서는 聚落의 歷史地理研究가 特色을 이루었다. 1928年 Cambridge에서 열린 IGU에서 報告된 H. King<sup>6)</sup>의 Lancashire 地方의 工業

化 이전의 聚落立地에 대한 研究, E.T. Leeds<sup>7)</sup>의 Thames江 流域의 先史聚落의 研究, O.G.S. Crawford<sup>8)</sup>의 England와 Wales 地方의 新石器時代의 聚落分布에 관한 研究는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美國은 그 研究動向이 多樣하나 新大陸의 聚落에 있어서 自然地理的 基礎와 經濟地理的 基盤을 地誌的으로 究明하는데 重點을 두고 農村과 土地利用問題, 都市周邊의 郊村과 開拓地의 居住地域 그리고 Latin America, Australia, Asia, Africa 등에 있어서 白人居住地域의 限界, 居住地域의 地誌的 연구에 큰 關心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 Asia에 관한 것으로는 R.B. Hall<sup>9)</sup>의 濟州島에 관한 研究, G.B. Gressy<sup>10)</sup>의 中國 양쯔江 Delta의 村落研究, G.T. Trewartha의 日本에 관한 研究등을 들 수 있다.

日本은 처음에 독일學風을 받아들여 聚落의 形態 景觀에 대한 研究가 1930年代에 이르러 시작되었고, 二次大戰後에는 古代의 條里制聚落, 中世의 莊園聚落등 歷史地理的 研究가 성행하더니 근래에는 聚落의 地域的 研究, 農漁村의 變遷과 再編成 문제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 2. 우리나라의 聚落地理學研究

해방전에는 우리나라의 聚落에 관한 研究는 日帝의 植民政策 수행의 資料調査에 目的을 두고 「朝鮮部落調査報告」<sup>11)</sup> 「朝鮮의 聚落」<sup>12)</sup> (3卷) 등이 官에 의해서 研究되었을 뿐이고, 地理學的인 研究는 거의 없었다. 解放後聚落에 관한 研究에 있어서 單行本으로서 發刊된 것은 「韓國農村의 村落構造」<sup>13)</sup> 「韓國의 村落에 관한 研究」<sup>14)</sup> 「聚落地理」<sup>15)</sup> 등이 있는데, 前二者는 社會·經濟史의 分野의 研究이고, 「聚落地理」만이 地理學分野에 屬한다. 그러나 이 책은 著者が 序文에서 밝힌바와 같이 學問的 考察이 아니고 教育의 資料로 서술한다고 했듯이 一般的인

서술이기는 하나 聚落을 村落과 都市로 區分하고, 聚落과 地形, 産業, 交通, 市場, 防禦, 風水, 宗教 氏族등과의 關係, 都市의 發達과 機能, 都市問題등 우리나라 聚落에 關하여 광범하게 다루었다. 이밖에 地理學關係 其他 서적중에 聚落에 關한 記述이 部分的으로 들어 있는 것으로는 姜錫午의 概觀韓國 地理(1957), 新韓國地理(1971), 金相吳의 地理學概論(1958) 金庚星의 人文地理學(1963) 李智皓의 韓國의 風土와 生活樣式(現代人講書 7, 1964), 盧道陽의 韓國文化的 地理的 背景(韓國文化史大系 I, 1964), 姜大玄外 共著로 된 國土의 研究(1965)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저서의 聚落에 關한 서술은 聚落的 立地와 分布形態, 機能등에 關하여 一般的으로 그리고 概觀的으로 서술한 것이 大部分이고, 專門的이고 分析的인 研究成果를 종합한 것은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1960年代 前半까지는 주로 一般的의 敘述에 머물러 있었으나 後半에 이르러 分析的이고 實證的인 地域研究에 關한 論文들이 發表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 주요論문을 發表年度에 따라 들면 다음과 같다.

姜大玄의 「漢江下流氾濫原聚落的 特質」(1966)과 大關嶺附近的 散村的 立地와 形態」(1966), 李泳澤의 「宗教聚落的 成立과 機能」(1966), 柳旺烈의 「黑山島의 聚落研究」(1967)와 「花開山村의 地理學的研究」(1970), 羅燾承의 「地形變化와 交通路 變遷에 따른 芙蓉里河港聚落的 쇠퇴과정에 대한 研究」(1968), 吳洪哲의 「濟州島의 聚落立地에 關한 研究」(1969)와 「濟州島의 聚落形態에 關한 研究」(1974) 「濟州島의 聚落에 關한 地理學的研究」(1974)등을 들 수 있다.

姜大玄의 「漢江下流氾濫原聚落的 特質」<sup>16)</sup>은 聚落的 立地, 形態, 機能등 多角的觀點에서 聚落的 特質을 파악한 것으로서, 専門적으로 調查分析된 最初의 聚落地理學 논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大關嶺 附近的 散村的 立地와 形態」<sup>17)</sup>는 大關嶺 山地開發과 火田民의 定着事業에 대한 基礎資料를 얻기 위하여 施行된 調查研究인 만큼 體系的이며 組織的인 學術的 意義보다는 村落의 立地條件과 分布狀態景觀, 家屋構造의 特色에 집중하고 있다.

李泳澤의 「宗教聚落的 成立과 機能」<sup>18)</sup>은 素砂(지금의 富川)에 있는 信仰村을 대상으로 그 成立, 住民, 家屋, 社會構造, 經濟活動, 文化施設등을 調查分析하여 宗教聚落的 特色을 究明하는 한편 그것을 首都 서울의 巨大化에 따른 郊外地域의 園地的(飛

地的) 都市化現象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柳旺烈의 「黑山島의 聚落研究」<sup>19)</sup>는 漁村의 生産活動을 中心으로 村落別機能의 類型的分類에 중점을 두고 있다. 黑山島의 地理的 環境을 地形과 海洋의 特色을 들어, 水溫의 季節的變化가 漁期와 漁場에 變化를 가져온다고 밝히고, 村落別로 漁業活動과 專業및兼業率에 따라서 漁村의 類型을 4가지로 區分하고 있다.

한편 柳旺烈의 「花開山村의 地理學的研究」<sup>20)</sup>는 地形位置에 의해서 山村形態를 4類型으로 區分하고 土地利用과 關聯시켜서 그 特色을 說明하고 있다.

羅燾承의 「芙蓉里河港聚落的 盛衰過程에 關한 研究」<sup>21)</sup>는 河港聚落的 盛衰를 鐵道 開通以前과 以後의 內陸地方에 對한 交通路의 變遷과 河道變遷에 의해서 說明하고 있다.

吳洪哲은 濟州島의 聚落에 關하여 多年間에 걸친 立地, 形態<sup>22)</sup> 同族聚落的 成立 등 段階的인 研究를 거쳐 이것을 集大成하여 「濟州島의 聚落에 關한 地理的研究」<sup>23)</sup>를 그의 學位論文으로 내놓았다. 그는 濟州島의 聚落發達過程에 關하여 起源의 聚落은 北西海岸의 湧泉帶가 中心이었으나 倭寇의 침공을 피하여 中世末부터는 生活中心圈이 內陸地方으로 이동하였다, 流民들의 移入으로 同族聚落이 成立되고, 現代에 이르러 一周道路의 開通으로 臨海聚落이 成立되는 過程을 社會經濟學的으로 究明하고 있다. 그리고 聚落形態에 있어서 가장 一般的인 集村形成의 要因을 地形, 飲料水, 分家制度, 防禦, 交通 등 各要素를 精密하게 分析하고 綜合的으로 考察하고 散村形成의 要因으로 柑橘栽培과 지붕改良에 의한 雨水貯溜로 飲料水制約性의 解消를 들어 說明하였다. 聚落的 機能은 臨海地域의 農漁業, 內陸漸移地帶의 農業, 山麓의 農牧業과 山間의 椎柎재배등 類型으로 區分하고 그 生産樣式을 地形, 用水, 社會, 經濟, 交通등에 의해서 說明하고 있다. 吳洪哲의 濟州島聚落에 關한 研究는 해방 30年間的 聚落의 地域的研究에 있어서 가장 큰 成果의 하나라고 할 수 없다.

### 3. 都市地理學의 發達과 最近의 動向

都市地理學의 發展은 19세기 이후의 工業化에 의한 都市發達이 가장 큰 자극이 되었고, 20세기에 이르러 차차 聚落地理學에서 分化 發展하게 되었다.

따라서 各國의 都市地理學의 研究動向은 앞에서 言及한 聚落地理學의 研究動向과 비슷하다. 要約하면 독일에서는 都市形態와 景觀, 機能研究에 치중하고 있는데 대하여, 프랑스는 歷史的 地誌의 研究, 英國은 都市發達과 都市計劃에 관한 研究, 美國은 立地와 經濟的 機能, 都市地域의 構造에 관한 研究에 큰 成果를 보이고 있다.

都市地理學이 分化發展하는 과정에서 가장 劃期的인 變化는 1930年을 前後하여 獨일을 中心으로 形態論에서 機能論으로 발전한 것이고, 戰後에 있어서 가장 큰 變化는 美國을 中心으로 하는 計量的 方法의 導入이라고 말하고 있다. 最近의 都市地理學의 動向變化를 알아보기 위하여 1960年(스웨덴)과 1972年(캐나다) IGU에서 發表된 都市地理學에 관한 題마를 比較하여 보면 큰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1960年의 심포지움에서는 中心地問題와 都市內部에 있어서의 都心과 地域分化的 문제에 集中되고 있는데 對하여, 1972年에는 都市內部地域의 研究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都市化문제와 中心地 問題가 차지하고 있다<sup>24)</sup>.

이것을 分野別로 보면 첫째 都市內部地域研究에 있어서는 1960年의 IGU에서는 都心과 商業地域의 研究가 主였으나, 1972年에는 計量的 手法에 의한 都市社會地理 研究가 中心地마였다. 둘째, 中心地로서의 都市研究는 1960年에는 先進國 위주였으나, 1972年에는 開發途上國의 조사보고, 地域間의 比較 研究, 地域中心으로서 都市의 영향력 등이 중요한 問題였다. 셋째, 都市機能分類 및 綜合的 特性의 研究에서는 지금까지 經濟的 機能分類가 主였으나, 最近에는 경제기능외에 社會, 人口, 政治, 教育, 地理的 位置등 多樣한 指標를 컴퓨터를 써서 因子 分析法에 의해서 類型化를 하고 종합적 都市特性을 파악하려는 計量地理的 研究가 많아지고 있다. 넷째 都市化에 대하여는 1972年 10개 이상의 論文이 發表되었는데, 都市의 歷史的 發展過程, 國際的 比較, 開發途上國의 工業化와 都市化와의 關係, 都市化의 특징등이 역시 計量的 分析에 의해서 研究되고 있다.

都市地理學의 發展과 動向을 總괄적으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都市의 位置 및 分布에 관한 研究에서 都市 地域 內部構造에 관한 研究 즉 點에서 面으로, 分布에서 構造로 研究 傾向이 변해가고 있다.
- (2) 都市의 形態, 街路網, 景觀등 形態의인 研究에서 都市의 機能, 기능분류와 類型化등 기능

적인 연구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 (3) 都市의 靜態的인 研究에서 動態的인 研究 즉 都市化에 관한 연구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 (4) 都市化와 周邊地域과의 關係, 都市圈, 中心地로서의 都市등 廣域的인 都市研究도 많아지고 있다.
- (5) 國際的比較研究, 특히 開發途上國의 都市特性과 都市化문제가 많아졌다.
- (6) 종래의 定性的인 研究에서 定量的인 研究, 즉 計量地理學的 方法이 一般化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反省도 일어나고 있다.
- (7) 都市計劃과 再開發, 都市문제해결, 災害防止, 都市진단등 應用的인 研究도 중요시되고 있다.

#### 4. 우리나라의 都市地理學 研究

解放 30年間에 우리나라 地理學 各 分野에 있어서 가장 큰 發展과 成果를 보인 것은 都市地理學分野라고 말할 수 있다. 1960年代 이후 우리나라의 經濟成長과 더불어 都市發達이 顯著했고, 급격한 都市化는 地理學研究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했다. 韓地學會 會誌「地理學」第1號(1963) ~ 第11號(1975)에서 發表된 論文(論說에 限함)은 모두 55편에 달하는데, 그중 가장 많은 것이 都市地理學分野로 15편(27.3%)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都市地理學의 研究動向을 보기 위하여 韓國論著解題 IV 地理學篇<sup>25)</sup>에 있는 都市地理學關係 論文중에서 地理學(學會誌)를 비롯하여, 各大學의 論文集과 刊行物에 發表된 것, 그리고 이

都市地理學의 領域別 論文 篇數

(1975年 10月 現在)

領 域 區 分	論文篇數
○都市의 位置·立地·分布(市域 포함)	1
○都市의 發達(歷史的 研究·解放前 都市成長)	6
○都市化	8
○都市의 形態·景觀	3
○都市機能(生態포함)	10
○都市構造(中心商街, 都心 및 副都心포함)	5
○都市圈(中心地문제, 首都圈, 衛星都市포함)	12
○地域的 研究	2
○其他(人口, 公害, 都市計劃등 應用面포함)	5
計	52

책 發刊後에 發表된 주요 論文을 간추리던 都市地理學關係論文은 모두 50餘편에 이르고 있다. 이것을 都市地理學 各領域別로 分類한다면 p. 83의 表와 같다.

이 표에서 보던 都市圈에 關한 研究가 領域이 넓은 관계로 가장 많고, 다음이 都市機能, 都市發達(歷史的研究)과 都市化, 都市構造順이며, 二次大戰前 各都市地理學 發達 前期에 성행했던 都市의 立地와 分布, 形態와 景觀, 地誌的研究에는 큰 興味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의 都市地理學關係論文이 모두 1960年代 이후에 發表된 것을 對象으로 分類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귀추이며, 先進諸國의 都市地理學의 研究動向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領域別로 그 研究테마와 研究動向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都市의 立地 및 分布에 關한 研究는 그 수가 적으나 都市의 分布에 대하여는 洪慶姬<sup>26)</sup>의 연구가 있고, 立地에 대해서는 姜大玄의 地形의 立地の 類型<sup>27)</sup>에 대한 考察이 있다. 南韓都市의 地形立地の 類型을 臨海, 平野, 內陸盆地로 분류하고, 內陸盆地立地가 가장 많고 平野立地가 이외로 적으며, 市街地形은 山麓 완사면, 丘陵斜面 여기에 연속되는 氾濫原이 가장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都市發達(歷史的) 研究는 비교적 많고 研究分野도 多樣하다. 李琦錫<sup>28)</sup>은 舊邑의 生態形成 및 變遷過程, 類型을 京畿地方을 中心으로 調查研究하였고, 崔永俊<sup>29)</sup>은 仁川의 開港前後의 景觀要素中 殘存하는 것을 調査하여, 당시의 景觀을 復元하고, 그것이 現在의 都市景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言及했다. 20세기 이후의 都市發達에 대해서는 洪慶姬<sup>30)</sup>, 李漢淳<sup>32)</sup> 그리고 姜大玄<sup>31)</sup> 등의 研究가 있는데, 解放前과 解放後를 區分하여 都市數 및 都市人口의 增加, 人口增加추세, 分布地域 그리고 生態등에 關하여 論하고 있다. 姜大玄은 古代의 都市發生에서 시작하여 해방전까지 時代別로 都市形成過程과 그 要因등 우리나라의 都市發達史를 概論하였다<sup>33)</sup>.

세째 都市化에 關한 研究는 최근 가장 關心을 갖는 分野의 하나인데 都市化가 가장 큰 서울에 대한 研究가 가장 많다. 李淑妊<sup>34)</sup>은 서울의 新村地域을 中心으로 都市化 과정과 要因을 분석했고, 서울의 洞別人口 增加率에 의해서 都市化前線과 段階에 대하여 論했다. 한편 姜大玄은 大都市郊外地域의 都市化過程과 類型을 究明<sup>35)</sup>하기 위하여 서울 東部地域의 都市化要素의 增加過程과 分布를 分析하여 都市化段階 地域의 構造와 類型化를 시도했고, 한편

서울의 過密化實態에 言及했다. 이밖에 金萬亨<sup>36)</sup>은 安東을 例로 都市化를 측정했다. 이밖에 洪淳完의 大邱를 中心으로 「大都市의 過密과 近郊의 問題, 洪始煥의 「서울을 都市의 發展과 東部郊外地域의 都市化」研究도 都市郊外地域의 都市化에 대한 研究이다.

네째 都市의 形態와 景觀에 關한 研究는 基礎的인 分野인데, 이외로 관심이 적은 것 같다. 洪慶姬<sup>37)</sup>는 南韓都市의 市域의 넓이와 人口 및 市域擴張, 都市의 運과 街路構造등 都市平面形態에 關하여 論하였다.

다섯째 都市機能에 關한 研究에는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洪慶姬<sup>38)</sup>는 都市就業人口를 1.2.3次 三大産業別構造에 의해서 南韓都市를 考察했고, 標準型都市와 특수기능도시, 田園型都市등 3類型으로 分類했다. 産業別人口에 의한 分類와 産業別構成比와 특수기능에 關한 研究는 朴成鎬<sup>39)</sup>, 李漢淳<sup>40)</sup>의 연구가 있다. 이상의 都市個體의 機能을 究明하는 研究에 대하여 都市와 周邊地域에 대한 서어비스機能 즉 都市最少活動必要量(minimum requirement)에 의한 韓國都市의 經濟的 機能에 대해서는 朴英漢<sup>41)</sup>의 研究가 있다.

그외 邢基柱<sup>42)</sup>는 大邱, 黃載璣<sup>43)</sup>는 서울의 工業에 關한 研究가 있다. 한편 F.R. Pitts<sup>44)</sup>는 要因分析法에 의한 計量的 手法로 서울과 大邱의 都市生態를 分析했다.

여섯째 都市의 地域構造에 關해서는 邢基柱<sup>45)</sup>, 李泳澤<sup>46)</sup>, 朴英漢<sup>47)</sup>, 成俊鏞<sup>48)</sup> 등의 都心部의 形成 및 地域構造와 分化, 副都心形成등 문제를 論했고, 韓大鉉<sup>49)</sup>은 海岸都市의 構造에 대하여 연구했다. 邢基柱는 大邱市의 中心商街를 6개의 指標에 의해서 그 構造와 分化, 그리고 集心性, 局地性, 散在性등 分布型과 그 性格에 關해 論했고, 李泳澤은 銀行과 會社, 高層建物, 娛樂施設 등의 分布와 學園(大學)의 離心的 移動을 지표로 都心과 副都心の 形成을 論했고, 朴英漢은 10개의 中心性機能을 지표로 都心性을 測定하여 都心地域의 構造와 分化를 論했다.

일곱째 都市圈에 關한 研究는 首都圈, 都市勢力圈, 中心地문제, 衛星都市, 首都圈의 靛農業등 多樣한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다. 朴魯植<sup>50)</sup> 趙東奎<sup>51)</sup>는 首都圈都市計劃을 위한 自然, 土地利用, 社會, 經濟, 交通등 광범한 調查研究를 하여 그 基礎資料와 地圖를 제시했고, 趙東奎<sup>52)</sup>는 首都廣域圈의 人口分布와 動態의 要因을 分析하였다. 洪慶姬<sup>53)</sup>는 慶

尙北道の 都市에 대하여 都市力에 의해서 都市勢力圈을 劃定하고, 그 階層別構造를 論하였다. 金在玟<sup>54)</sup>과 李鶴源<sup>55)</sup>은 首都圈의 酪農業에 대한 연구에서 金在玟은 集乳圈의 擴大가 酪農地域의 擴大에 要因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李鶴源은 酪農立地의 pattern을 河川邊, 山麓완사면, 遊休地, 圍地로 分類하고 있다. 姜達中<sup>56)</sup>은 安養의 衛星都市의 性格을 位置, 發達過程, 機能, 生活圈, 地域構造의 調査分析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崔基燁<sup>57)</sup>은 中心地理論 朴英漢<sup>58)</sup>은 金堤郡을 事例로 農村서어비스 中心地의 階層的 構造와 그 空間構造를 論하였다. 이밖에 洪淳完의 「廣域中必都市의 成立과 發展」<sup>59)</sup> 李淑妊의 서울周邊地域의 地域構造(京畿一帶)<sup>60)</sup>의 研究는 都市圈에 관한 研究인데, 洪淳完은 大邱를 中必으로 우리나라 廣域中必都市의 特性과 機能을 論하였다.

여덟째 都市의 地誌의 研究는 그 수가 적으나 姜錫千<sup>61)</sup>, 洪慶姬<sup>62)</sup>, 羅燾承<sup>63)</sup> 등의 연구가 있다. 특히 洪慶姬의 大邱市에 대한 都市地理學의 研究는 해방 30年間에 있어서, 都市地理學研究中 가장 큰 成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多年間에 걸쳐서 多角의 所以로 調査研究한 것을 都市地誌로 集大成한 것으로 大邱의 自然的 基礎, 歷史的發達過程, 人口, 都市形態, 地域分化, 都市勢力圈 등에 관하여 系統的으로 地域性을 究明하여 우리나라 都市의 地誌의 研究에 큰 示唆를 주고 있다.

아홉째 都市의 人口에 관해서는 金仁<sup>64)</sup>, 朴秀東<sup>65)</sup> 등의 연구가 있고, 公害에 관해서는 劉永暉 등의 考察이 있다. 金仁은 서울을 事例로 都心에서 멀어질수록, 人口密度의 成長率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密度分析에 의한 都市人口推計方法을 論하고 있다.

姜大玄의 「都市地理學」<sup>66)</sup>은 이상에서 열거한 諸論文과 國內外의 都市關係 서적을 토대로 都市地理學 전반에 걸친 內容을 系統的으로 叙述하였다. 內容構成은 1章 都市의 地理的 研究에서 시작하여 2章 都市의 發達에서는 西洋, 東洋都市와 우리나라의 都市發達을 時代別로 서술하고 3章 都市의 立地와 分布에서는 地形的環境・河川水系 氣候・生物的環境과 都市에 대하여 설명하고 4章 都市의 形態와 構造에서는 平面形態와 立體境觀, 地域構造, 衛星都市, 都市圈에 대하여 說明하고, 5章 都市의 機能에서는 機能分類, 類型 6章 都市化過程과 類型에서는 都市化의 단계와 類型, 韓國의 都市化와 서울의 都市化, 그리고 郊外의 都市化를 實證의 所以로 설명하였다.

## 5. 村落 및 都市地理學의 展望

(1) 아직은 初步的인 段階에 있다. 해방후 30年間에 있어서 村落과 都市地理學의 研究動向과 그 成果에 대하여 대략 살펴 왔다. 地理學 전문야가 그러하듯이 이 分野에 있어서도 해방 30年間의 前半期 즉 1960年代 이전에 있어서는 理論과 方法論의 정비 및 研究期間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토대가 되어 1960年代 이후에 와서는 漸次 그 成果가 發表되기 시작하여, 後半期 十數年間에 상당히 많은 研究成果가 發表되었다. 그러나 分野別로 보면 아직 미약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元來 地理學이 他學問과 달라서 分野가 넓고, 方法論도 多様하고, 自然科學에 比해서 專門性이 적고, 應用面과 멀어지기 쉽기 때문에 1960年代 이후의 우리의 社會成長과 步調를 같이하여 發展했다고는 볼 수 없다. 앞에서 概觀한 研究動向에서 볼 때 研究者와 研究成果에 있어서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아직은 初步的인 단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2) 未開拓 研究分野가 많다. 村落 및 都市地理學은 그 立地와 分布, 形態와 景觀등 靜態的인 分野에서 發達過程, 機能, 地域構造, 地誌, 應用등 動態的인 分野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廣範하다. 이러한 分野別로 볼 때에 村落地理學에 있어서는 겨우 各分野別로 하나 둘의 論文을 들 수 밖에 없을 정도이고, 都市地理學에 있어서도 몇몇 事例的인 都市를 제외하고는 아직 未開拓分野가 많이 남아 있다.

(3) 靜態的인 研究에도 關心을 가져야겠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段階的인 연구가 必要하다. 先進諸國의 村落과 都市地理學의 發達初期에는 立地와 分布形態와 景觀등 靜態的인 研究가 盛行하였다. 靜態的인 要素는 곧 動態的인 現象의 要因이 되는 이 만큼 靜態的인 要素의 研究가 先行되었다. 先進國家의 斯學은 그 위에 機能이나 地域構造, 地誌의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分野의 研究를 소홀히 한 채 動態的인 研究에만 큰 關必을 갖는 느낌이 든다. 學問에 미약이 있을 수는 없다. 村落이나 都市를 막론하고 立地, 分布, 形態와 景觀은 機能이나 地域構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分野의 研究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줄 안다.

(4) 地誌의 研究와 應用面의 研究에도 關心을 가져야 한다. 모든 學問分野와 마찬가지로 地理學도

理論, 方法論의 體系化를 추구하는 分野와 應用分野가 있다. 그런데 地理學은 自然科學, 社會文化科學에 걸쳐 있어서 자칫하면 地理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기가 일수다. 他學間에서 볼 때 地理學은 專門分野도 희박하고, 독특한 方法論도 미약한 것 같이 보이는 모양이다. 그래서 先學들은 地理에 설 곳은 오직 地域研究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村落·都市研究도 실로 多分野에서 研究對象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地理學者는 역시 地域的 研究을 무기로 삼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多幸히 村落에 관해서는 吳洪哲의 濟州島研究, 都市에 있어서는 洪慶姬의 大邱研究가 좋은 成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地誌的研究가 各地方, 各都市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村落의 改造, 都市計劃과 都市公害 문제등 應用面의 研究에도 큰 關心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그래서 地理學이 社會에서 外面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急變하는 社會에 對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일찍이 歷史에서 그 例를 찾아보기 어려운 急變하는 社會에 살고 있다. 第一次 產業社會에서 第2,3次 產業社會로 올라가고 있어서, 先進國이 19세기에 겪었던 產業革命과 20세기 中葉에 겪은 技術革新을 우리는 한꺼번에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村落도 都市도 그 立地와 形態, 景觀, 構造와 機能이 急變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村落과 都市에 대해서 歷史的인 成立過程이나 고유의 形態나 景觀, 機能을 研究하기도 前에 귀중한 文化的 遺産이 살아져가고, 새로운 形態, 景觀, 機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過去를 모르고 現在를 理解할 수는 없거니와 더구나 未來를 展望할 수는 없다. 急變하는 社會에 對應해서 斯學의 研究도 多角的이고 보다 활발하게 研究가 이루어져야겠다.

(6) 協同的인 研究와 새로운 方法論도 정립되어야겠다. 다른 分野도 마찬가지지만 村落·都市는 研究分野가 넓고 多岐하기 때문에 個別的인 個人研究로서는 能히 한 地域이나 한 分野의 研究를 카버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前項에서 言及한 것처럼 急變하는 社會에 있어서 同一時點에서 한 地域이나 한 分野를 短時日內에 研究하려면 多數研究者의 協同研究가 없이는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할런 方法論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자칫하면 外國의 方法을 그대로 우리의 地理研究에 적용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地理學의 方法論이 世界 어디에나 共通되는 적응성을 갖인 一般的인 것은 없는 것 같

다. 外國의 方法論을 參考로 하여 우리나라의 村落都市研究에 알맞는 새로운 方法論이 차차 正립되어 갈 단계가 아닌가 본다.

(서울教育大學 教授)

### 參 考 文 獻(註)

- 1) Meitzen, A. 1895, Siedlung und Agrarwesen beidem Westgemaren, Ostgermaren, Römer, Finner und Berlin, s. 56~73.
- 2) Mielke, R. 1910, Das Dorf, Leipzig, s. 99~167.
- 3) Schlüter, O. 1899, "Bemerkungen zur Siedlungs Geographie," *Geogr. Heitschr.* Berlin, s. 60~66.
- 4) Gradman, R. 1914, Das Landliche Siedlungswesen des königreichs Würteinburg, Forschugen zur deutschen Landes und Volkskunde XXI, Stuttgart, s 20-26.
- 5) Vidal de la Blache, P. 1921, Principis de geographie Humaine, Paris, pp. 115~150.
- 6) King, H. 1928, The geography of Settlement in Scuth west Larcashire, London, pp. 114~121.
- 7) Leeds, E.T. 1928, Early Settlement in the Upper Thames Basin, London, pp. 122~130.
- 8) Grawford, O.G.S. 1922, "Prehistoric Geography, Ordinary Survey, Great Britain", *Geogr. Rev.*
- 9) Hall, R.B. 1926; "Quellpart Island and its people," *Geogr Rev.*
- 10) Grassy, C.B. 1936, "The Tenghsien Landscape A Fragment of the yongtz Delta", *Geogr. Rev.*,
- 11) 小田內通敏, 1924, 朝鮮部落調查報告, 朝鮮總督府
- 12) 善生永助, 1933, 朝鮮의 聚落(3卷), 朝鮮總督府
- 13) 梁會水, 1967, 韓國農村의 村落構造,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 14) 文炳集, 1970, 韓國의 村落에 관한 研究, 中央大學 出版部
- 15) 李泳澤, 1972, 聚落地理, 大韓教育聯合會
- 16) 姜大玄, 1966. "漢江下流氾濫原聚落의 特質", 地理學 2號, pp. 14~26.
- 17) 姜大玄, 1966, "大關嶺附近의 散村의 立地와 形態", 只山先生華甲 記念論文集, pp. 9~20.
- 18) 李泳澤, 1966, "宗教聚落의 成立과 機能", 只山先生華甲記念論文集, pp. 99~109.
- 19) 柳旺烈, 1967, 黑山島의 聚落研究, 木浦教大論文集 1집, pp. 57~68.
- 20) 柳旺烈, 1970, "花開山村의 地理學的研究", 木浦教大論文集 1집 pp. 203~241.
- 21) 羅燕承, 1968, "地形變化와 交通路變遷에 따른 芙蓉

- 里河港聚落的盛衰過程에 對한 研究”, 公州教大教育研究所論文集 5집, pp. 81~95.
- 22) 吳洪哲, 1969, “濟州島의 聚落地에 關한 研究”, 地理學 4號, pp. 41~54.  
吳洪哲, 1974, “濟州島의 聚落形態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論文集 5집, pp. 41~62.
- 23) 吳洪哲, 1974, 濟州島의 聚落에 關한 地理學의 研究, 서울
- 24) 森川洋, 1974, “都市地理學の流れ”, 地理學(日本古今書院), 19卷 1號, pp. 52~58.
- 25)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4, 韓國論著解題 IV, 地理學篇, pp. 883~972.
- 26) 洪慶姬, 1964, “韓國의 都市分布”, 慶北大學校論文集 8호
- 27) 姜大玄, 1975, “都市地理學—都市의 立地의 分布, 敎學社, pp. 95~123.
- 28) 李瑞錫, 1968, “舊邑聚落에 關한 研究”, 地理學 3號, pp. 31~44.
- 29) 崔永俊, 1974, “開港前後의 仁川의 自然 및 人文景觀”, 地理學 10號, pp. 43~60.
- 30) 洪慶姬, 1962, “韓國의 都市化—日政時代”, 慶北大學校論文集 6집, pp. 287~925.
- 31) 李漢淳, 1963, “南韓都市人口의 膨창과 生態”, 地理學 1號, pp. 67~82.
- 32) 姜大玄, 1963, “韓國의 都市成長”, 地理學 1號, pp. 15~31.
- 33) 姜大玄, 1975, “우리나라의 都市發達”, 前揭書, pp. 20~94.
- 34) 李淑妊, 1961, “서울都市化의 實態”, 梨花女大綠友會報 3號, pp. 135~154.  
李淑妊, 1969, “人口現象으로 본 서울의 都市化研究” 梨花女大 韓國文化研究院論叢 13집, pp. 135~154.
- 35) 姜大玄, 1971, “大都市郊外地域의 都市化過程과 類型의 研究”, 地理學 6號, pp. 25~50.  
姜大玄, 1973, “都市過密化의 實態—過密都市化문제에 關한 研究, pp. 18~35.
- 36) 金萬亨, 1969, “都市化測定의 實證的 研究”, 安東敎大論文集 4집, pp. 149~164.
- 37) 洪慶姬, 1968, “南韓都市의 市域”, 慶北大師大 敎育研究誌 9집, pp. 32~53.  
洪慶姬, 1969, “南韓都市의 形態”, 慶北大論文集 13집, pp. 97~113.
- 38) 洪慶姬, 1965, “南韓都市의 機能分類”, 慶北大論文集 9집, pp. 189~204.  
洪慶姬, 1967, “南韓都市의 產業三大別構造”, 慶北大論文集 10집, pp. 145~165.
- 39) 朴成鎬, 1966, “韓國都市의 機能分類”, 地理學 2號, pp. 43~56.
- 40) 李漢淳, 1995, “南韓都市의 機能的 研究”, 慶熙大論文集 4집, pp. 255~281.
- 41) 朴英漢, 1970, “韓國都市의 경제적 구조分析”, 서울大文理大 駱山地理 1호, pp. 11~19.
- 42) 邢基柱, 1968, 工業立地의 動向—大邱市工業立地形成過程을 中心으로.
- 43) 黃載璣, 1975, “서울市 제조업의 업종별 地域構造”, 地理學 11號, pp. 47~64.
- 44) Pitts, F.R. 1973, “韓國의 都市生態에 關한 研究”, 地理學 8號, pp. 24~36.
- 45) 邢基柱, 1966, “大邱市中心商街構造와 分化”, 只山先生華甲紀念論文集, pp. 225~248.
- 46) 李泳澤, 1970, “서울의 都心과 副都心の 形成”, 地理學 5號, pp. 31~40.
- 47) 朴英漢, 1973, “서울 都心地域의 設定과 內部構造에 關한 研究”, 地理學 8號, pp. 51~62.
- 48) 成俊鏞, 1944, “大田市 中心商街의 構造”, 公州師大論文集 9집, pp. 191~210.
- 49) 韓大鉉, 1971, “海岸都市의 構造”, 慶北師大地理敎育 4卷1호, pp. 1~6.
- 50) 朴魯植, 1963, 首都廣域圈調查, 建設部
- 51) 趙東奎, 1964, 首都廣域圈土地利用調查, 慶熙大學校國土開發研究所.
- 52) 趙東奎, 1944, 首都廣域圈을 中心한 人口의 考察, 慶熙大學校論文集 3호, pp. 67~89.
- 53) 洪慶姬, 1970, “慶尙北道의 都市勢力圈劃定 및 分析”, 慶北大論文集 14집, pp. 205~234.
- 54) 金在珉, 1969, “首都圈을 中心으로 한 酪農地域의 形成”, 春川敎大論文集 7집, pp. 9~28.
- 55) 李鶴源, 1974, “서울을 中心으로 한 酪農立地에 關한 研究”, 地理學 10호, pp. 61~81.
- 56) 姜達中, 1969, “安養의 衛星都市의 諸性格”, 서울師大學報 11호, pp. 71~82.
- 57) 崔基燁, 1971, “中心地理論의 方法論的 研究”, 地理學 6號, pp. 69~80.
- 58) 朴英漢, 1975, “農村서서비스 中心地의 空間構造에 關한 研究, 地理學 11호, pp. 1~16.
- 59) 洪淳完, 1974, “廣域中心都市의 成立과 發展”, 慶北大敎育大學院論文集 第5輯, pp. 121~149.
- 60) 李淑妊, 1974, 서울 周邊地域의 地域構造(京畿一帶), 梨大韓國文化研究院論叢24輯, pp. 317~333.
- 61) 姜錫午, 1960, “西江地域社會調查報告”, 梨大綠友會報 2호, pp. 1~34.
- 62) 洪慶姬, 1965, 大邱市—都市地理學의 研究, 大邱市
- 63) 羅肅承, 1964, “公州邑의 地理的 研究”, 公州敎大, 敎育研究所 論文集 1집, pp. 45~67.

- 64) 金 仁, 1974, “密度分析에 의한 都市人口推計方法에 관한 研究”, 10號, pp. 33~42.
- 65) 金仁·朴秀東, 1944, “都市人口密度分布의 패턴과 成長에 관한 研究”, 서울大環境大學院環境論叢 1-1, pp. 65~79.
- 66) 姜大玄, 1975, 都市地理學, 教學社.